

金萬基 · 金萬重의 『詩選』 편찬에 대하여

최은주*

|| 차례 ||

1. 序論
 2. 『詩選』 편찬의 배경
 3. 『詩選』 편찬의 實狀
 4. 結論
- 참고문헌

【국문초록】

『詩選』은 김만기(1633~1687)와 김만중(1637~1692)이 함께 편찬한 총 11권의 詩選集으로, 周·魏·晉·宋·齊·梁·陳·隋·唐代 까지의 詩를 古樂府·古詩·律詩·絶句의 詩體별로 선발하였다. 卷1에서 卷4까지는 唐 이전까지의 시들을 樂府와 古詩로 나누어 수록하였고, 卷5부터는 唐詩를 각각 五·七言古詩, 五言律詩, 五言排律, 七言律詩, 五·七言絶句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卷頭에 諸家の 詩論을 요약·정리한 「諸家總論」篇이 덧붙여 있고, 선발된 작가에는 諸家の 작가에 대한 전반적인 評이, 각 詩에는 諸家の 詩評이 상세하게 채록되어 있다.

詩文選集은 수많은 작가 및 작품들 가운데에서 뚜렷한 選集 의도와 기준 아래 일정 수량의 작가와 작품을 제한적으로 선발해야만 하는 특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시문선집은 편찬자의 비평의식과 문학 활동의 경향이 총체적으로 투영된 집합물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직접적인 창작활동은 아니지만, 시문선집에 반영된 선집의도 및 기준 그리고 체재 형식 등은 편찬자의 비평의식과 문학의 경향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더욱이 『詩選』의 경우, 김만기와 김만중이 요약·정리하여 제

* 영남대학교 한문교육과 강사

시한 卷頭의 「諸家總論」을 통해 보다 상세하게 선집 기준과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선발된 작가와 작품에 그와 관련된 諸家の 評을 소개하고 있어, 편찬자가 선집 기준을 얼마나 투철하게 적용하였는지 또 선집 의도를 끝까지 고수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고찰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본고에서 살펴본 결과, 『詩選』은 법식으로 삼고 익혀야 하는 작품만을 단순하게 선발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卷頭에 諸家總論篇이라는 다소 특이한 형식을 덧붙여 學詩 방향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후학들에게 學詩의 門路를 열어 주려 하였다. 또한 특정 문학유파를 막론하고 다양하고도 광범위한 諸家の 詩評을 수록하여 選集의 객관적 설득력을 확보하였으니, 이는 김만기와 김만중의 博學的 성향이 간접적으로 투영된 것이었다. 그러나 편찬 과정에서 김만기와 김만중은 본래 뜻을 두었던 復古 추구의 기본 방침을 끝까지 잃지 않았으며, 오히려 博學에 기반을 두고 다양한 문학유파들의 詩評을 인용하며 자신들의 선집의도를 적절히 부각시켰다. 실제 작가 및 작품 선발에 있어서도 세심하고 용의주도하게 편찬자의 選集 기준을 잘 반영하여 『詩選』이 자칫 주관적 감식력에 기인한 선별로 흐를 위험을 방지하였다고 하겠다.

주제어 『詩選』, 金萬基, 金萬重, 17세기, 復古, 博學, 學詩

1. 序論

『詩選』은 김만기(1633~1687)와 김만중(1637~1692)이 함께 편찬한 총 11卷의 詩選集으로, 周·魏·晉·宋·齊·梁·陳·隋·唐代 까지의 詩를 古樂府·古詩·律詩·絕句의 詩體별로 선발하였다. 卷1에서 卷4까지는 唐 이전까지의 시들을 樂府와 古詩로 나누어 수록하였고, 卷5부터는 唐 詩를 각각 五·七言古詩, 五言律詩, 五言排律, 七言律詩, 五·七言絕句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卷頭에 諸家の 詩論을 요약·정리한 「諸家總論」篇이 덧붙여 있고, 선발된 작가에는 諸家の 작가에 대한 전반적인 評이, 각 詩에는 諸家の 詩評이 상세하게 채록되어 있다.

詩文選集은 수많은 작가 및 작품들 가운데에서 뚜렷한 選集 의도와 기준 아래 일정 수량의 작가와 작품을 제한적으로 선발해야만 하는 특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시문선집은 편찬자의 비평의식과 문학 활동의 경향이 총체적으로 투영된 집합물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직접적인 창작활동은 아니지만, 시문선집에 반영된 선집 의도 및 기준 그리고 체재, 형식 등은 편찬자의 비평의식과 문학의 경향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더욱이 『詩選』의 경우, 김만기와 김만중이 요약·정리하여 제시한 卷頭의 「諸家總論」을 통해 보다 상세하게 선집 기준과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선발된 작가와 작품에 그와 관련된 諸家의 評을 소개하고 있어, 편찬자가 선집 기준을 얼마나 투철하게 적용하였는지 또 선집 의도를 끝까지 고수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고찰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17세기는 唐詩風의 風情을 추구하고 漢魏 古詩의 풍골을 구현하려는 복고풍 창작 경향이 널리 유행하던 시기였는데, 『詩選』은 古樂府·古詩와 함께 唐代 까지의 작품만을 수록 선발했다는 점에서 일단 17세기 당대 문단의 복고적 경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편찬자인 김만기와 김만중은 문학적 측면에서 復古에 뜻을 두었던 인물들로, 그들은 당대에 복고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냈던 金錫胄, 李敏敘, 南龍翼 등의 작가들과 교류하며 중앙정계와 문단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詩選』의 일차적인 외형적 특성과 편찬자의 문학 경향에 우선적으로 주목하고, 『詩選』 편찬의 구체적 실상을 고찰함으로써 이 選集이 편찬자의 문학적 사유 및 당대 문단의 경향과 어떠한 영향관계를 형성하였는지 밝혀내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2. 『詩選』 편찬의 배경

16세기 후반에 들어서면 조선 시단은 이전의 江西詩風을 극복하고 唐詩風으로 나아가기 시작한다. 그러한 시풍의 변화는 17세기로 이어졌고, 그 속에서 다시 晚唐風을 극복하고 盛唐風으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와 동시에 詩經詩나 古樂府, 漢魏古詩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시단의 시풍 변화 양상은 明代 前後七子 문학론의 수용과 무관하지 않다. 주지하다시피, 前後七子는 李白·杜甫를 비롯한 盛唐詩와 漢魏古詩를 시의 모범으로 삼고 그 시풍을 따르려 했던 文學一派이다. 16세기 말 前後七子의 문학론이 전래되기 시작하면서 전대의 치우친 시풍을 바로잡으려는 당시 문인들의 시도가 더욱 활발해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조선 문단이 이들 문학론을 수용했던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었다고 생각되며, 김만기와 김만중 역시 당대 문단을 주도해 나갔던 인물들로서 17세기 문단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단의 경향은 당시 詩文選集 편찬상황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唐風으로 나아가려는 움직임과 古詩에 대한 관심은 상당수의 唐詩選集 및 古詩選集들을 수용 또는 편찬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¹⁾

김만기·김만중 형제가 함께 편찬한 『詩選』은 周代부터 唐代에 이르기까지 樂府 및 古詩와 近體詩를 함께 選集한 것이다. 또한, 選集한 각 詩에는 宋·元·明대 諸家들의 詩評이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王世貞과 胡應麟의 시평이 일정량을 차지하고 더불어 李夢陽·何景明·徐禎卿·謝榛 등 전후칠자들의 시평도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특히, 胡應麟은 자신의 시론 역시 왕세정의 『藝苑卮言』을 표준으로 삼아 명대 전

1) 詩選集의 편찬상황에 대해서는 이종목의 「詩風의 變化와 中國詩選集의 編纂 양상」(『한국 한시의 전통과 문예미』, 태학사, 2002)에 잘 정리되어 있다.

후칠자의 설을 답습할 정도로 왕세정을 추숭하고 또 복고주의를 지향하였다. 『詩選』의 이러한 편찬 경향은 그들이 기본적으로 明代 복고론자들의 시론에 공감하고 또 적극 수용했음을 반영한다. 실제로 김만기와 김만중은 문학 활동에 있어서 복고주의적 성향을 비교적 강하게 드러내었던 인물들이다.

인하여 내가 諸生이었을 때의 시를 생각해보니 성품이 깨울러 법식에 맞는 글은 즐겨 짓지 않았었다. 다만 때때로 古樂府와 文選의 詩를 취하여 읽으니 자못 그 하나의 반열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러는 동안 朱文公의 「與鞏仲之論詩」·「跋劉病翁彈箏詩」 등의 여러 글을 읽게 되었는데, 詩를 배우면서 이 길을 버리고서는 詩를 말할 수 없다고 스스로 더욱 믿게 되었다.²⁾

위의 예문은 김만중이 金昌立의 문집에 쓴 서문 가운데 한 부분이다. 그는 자신이 諸生이었을 때 게으른 성품 탓으로 규격과 법식에 맞는 글을 즐겨 짓지 않았다고 하며, 단지 古樂府와 文選의 詩를 읽고 익혀서 하나의 문학적 성취를 이룰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런 가운데 朱子の 글들을 읽고서는 더욱더 자신의 復古를 지향하는 學詩 방법을 믿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어서 그는 김창립이 時俗을 따르지 않고 옛것을 배우기에 힘을 쏟았으며, 따라서 그가 樂府·離騷·文選의 법식을 벗어나지 않고 때때로 『詩經』까지 본받으려 했음을 칭찬하였다.³⁾ 김만중의 이러한 서술은 古學에 대한 그의 관심을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복고주의 문학적 성향은 『西浦漫筆』에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시단에서 명성이 그다지 높지 않던 허체를 『文選』詩와 唐詩風을 체득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2) 金萬重, 「澤齋遺唾序」, 『西浦集』 권9. “仍憶余爲諸生詩 性懶 不喜作程式文 顧時時取古樂府文選詩而讀之 頗能窺其一斑 既而讀朱文公與鞏仲之論詩 跋劉病翁彈箏詩諸文 而益自信以爲學詩而捨此門路 則不可以爲詩也”

3) 金萬重 「澤齋遺唾序」, 『西浦集』 권9. “故其爲詩 銳於學古而不求合於時俗 所取法 舉不外於樂府騷選 斥而至於周詩三百 往往得之於聲氣之間 猝然觀之 鮮有不疑於漢魏間人口語”

높이 평가한 것이나, 古學에 뜻을 두었던 詩人에 대한 거론, 또한 그가 관심을 보인 작품들이 대개 唐詩風과 樂府風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 등에서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다고 하겠다.⁴⁾

김만중이 시를 배우기도 했던 家兄 김만기 역시 復古에 뜻을 두었던 인물로서, 이는 李頤命이 쓴 『詩選』의 跋文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李頤命은 김만기가 법식이 없고 날마다 비루함으로 나아가는 시풍을 극복하기 위해 復古에 뜻을 두고 동생 김만중과 함께 이 選集을 편찬하였다고 하였다.

시는 『文選』을 배웠으니, 젊었을 적 謝靈運을 본받아 사이사이 뛰어난 작품들이 있다. 근체시는 처음에 江西詩를 위주로 삼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학습의 길이 지나치게 편벽됨을 싫어하여 王世貞과 胡應麟의 설을 아울러 취하였다. 만년에는 또한 陸遊의 詩를 즐겨 보았으므로, 앞과 뒤의 詩格이 또한 일찍이 한결같지는 않다.⁵⁾

위의 예문은 김만중이 김만기의 문집에 쓴 跋文 가운데 일부분이다. 김만기는 學詩 대상으로 『文選』을 추구하였고, 그 중에서도 謝靈運을 본받았다고 하였다. 그는 『文選』이야말로 詩家의 正宗이며 시를 배우는 자들이 이로 말미암아 터득한다면 그 學詩 방향의 올바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겼는데,⁶⁾ 이는 그의 문학적 성향이 다분히 복고적이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처음에 江西詩 위주로 근체시를 학습하였는데, 얼마 뒤

4) 안대희, 「17세기 비평사의 시각에서 본 김만중의 복고주의 문학론」, 12면 참조. 『민족문학사연구』 제20호. 민족문학사학회, 2002

5) 金萬重, 「先伯氏瑞石先生集跋」, 『西浦集』 권9, “詩學文選 少時擬謝康樂 間有絕類者 近體初主江西 尋嫌門路太偏 兼取王元美·胡元瑞之說 晚又好看放翁詩 故前後詩格 亦未嘗執一也”

6) 金萬重, 「先伯氏瑞石先生集跋」, 『西浦集』 권9, “每謂朱文公選體 實是詩家正宗 而其論詩文 如其論學 學者由是而有得焉 則門路不患其不正也”

학습 방향이 대단히 편벽되었음을 느끼고 왕세정과 호응린의 설을 兼取하였다고 했다. 주지하다시피, 당시 문단은 江西詩風에서 唐風으로 옮겨가는 추세였으며, 왕세정과 호응린은 ‘詩必盛唐’의 기치아래 근체시는 더욱 盛唐을 따를 것을 주장했던 인물들로 당대 문풍의 변화에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6세기 중반 江西詩風을 일삼았던 湖蘇芝 정사룡, 노수신, 황정욱이 律詩의 창작을 선호하였음을 감안할 때, 김만기가 처음에 江西詩 위주로 근체시를 학습한 것은 문단의 유행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곧 편벽된 學詩 방향에 불만을 느끼고 그것을 바로잡고자 復古를 지향하며 唐風을 추구하게 되었다. 『詩選』을 편찬하면서 왕세정과 호응린의 설을 많이 채택한 것은, 물론 당시 많은 문인들이 왕세정의 『藝苑卮言』이나 호응린의 『詩藪』를 읽으며 적극 공감하고 수용했던 영향도 적지 않겠지만, 그의 당대 시풍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 인식 또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김만기는 또, 시는 五言이 있는 이후에 七言이 있고, 古詩가 있는 이후에 近體詩가 있다고 하면서 古人들은 각 詩體에 진실로 장단점이 있었는데, 지금 詩人들은 오로지 七律만을 익혀 詩風이 천근하다고도 하였다.⁷⁾ 당대 시풍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 인식들이 그가 동생 김만중과 함께 『詩選』을 편찬하게 된 근본적 동기였다고 할 수 있겠다.

근래의 詩道는 법식이 없고 날마다 비루함으로 나아가고 있다 비록 간간히 세상에 명성을 떨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재주만 갖추었을 뿐 배움이 없다 瑞石선생이 慨然히 復古에 뜻을 두고 아우 西浦公과 함께 수천년 동안의 작품들을 수집하여 오랜 세월 동안 침잠하니 시의 淵源을 꿰뚫게 되었다. 또 “五代이

7) 金萬重, 「先伯氏瑞石先生集跋」, 『西浦集』 권9. “又曰 詩有五言而後有七言 有古詩而後有近體 古人於此 固亦不無長短 未有如今人之專習七律者 今世詩 率傷淺促 豈不以把筆之初昧其本源故歟”

후로는 시를 말할 수 없어서 晚唐까지만 취하였다.”라고 하였다. 選別이 정련되고 鑑別이 지극히 정미하니 이로써 이 選集을 이룩하였다.⁸⁾

위의 예문은 李頤命(1658:孝宗 9~1722:景宗 2)이 쓴 『詩選』의 跋文이다. 『詩選』의 편찬의도가 날마다 비루해지는 시풍을 극복하고자 復古를 추구하려 한 것에 있었음이 확인된다. 김만기·김만중 형제가 수천년 동안의 작품들을 살펴보고 시의 淵源을 洞察하게 된 후에 내린 결론은 五代이후로는 거론할 만한 詩가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이 선집을 편찬하면서 晚唐까지만 채집 수록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詩必盛唐’의 기치 아래 唐代이전의 詩만을 중시하고 宋·元의 詩들은 상대적으로 폄시하였던 전후칠자 즉 明代 복고파의 문학론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당시 조선 문단은 명대 복고파 문학론의 전래로 복고주의가 더욱 활발해지기 시작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따르고 배울 수 있는 문학적 전범이 필요했다. 문학적 전범의 필요성에 부응하여 많은 唐詩選集과 古詩選集들이 중국에서 입수되거나 혹은 독자적으로 편찬되었는데, 『詩選』 역시 문학적 전범으로서의 역할을 분담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위의 예문에서 간혹 세상에 이름을 날리는 자라 하더라도 재주만 있을 뿐 배움이 없다고 말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詩는 재주만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배움이 있어야 한다는 뜻인데, 궁극적으로는 김만기와 김만중이 편찬한 『詩選』을 익히라는 말이겠지만, 좀 더 나아가 생각해본다면 復古를 실천하기 위해 옛 것을 모범으로 삼고 부단히 따르고 배우려 했던 전후칠자의 學詩 방법과 또 그 學詩 방법을 수용했던 당시 문단의 경향이 투영된 것이라 생

8) 李頤命, 『詩選跋』, 『疎齋集』 권10, “蓋近世詩道 無準則而日就卑陋 雖間有名世者 有其才而無其學 先生慨然有意於復古 乃與其季西浦公 蒐羅數千年間 沈潛積久 洞見淵源 又謂五代以後 不可以言詩 取止於晚唐 淘汰鎔鍊 鑑別極精 以成是選 蓋欲至粹而無雜 用寡而敵衆”

각된다.

대개 순수하고 압박함이 없는 경지에 이르러서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대적하도록 장차 나아갈 길을 열어 보여주려 한 것이다. 風雅로 날개를 삼아 진실로 헤매는 길에서 나침반이 되어 주고 못 화살들의 正鵠이 될 것이니. 뛰어나고 사랑스런 후학들은 아! 또한 淺鮮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가령 읽는 자가 그 전체를 다 살피지 못한다면 이 選集이 있는 것만 알 뿐 어찌 선생이 博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요약하게 된 본뜻을 알겠는가?⁹⁾

17세기쯤에 이르면 이전부터 누적되어온 개인문집 및 각종 서적들이 한 사람이 읽고 익히기에는 이미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그 양이 증가하였을 것이다. 시대가 내려올수록 選集 간행이 더욱 빈번해 지는 것에는 이런 이유 또한 없지 않다고 여겨진다. 選集은 편찬자의 뚜렷한 의도와 기준 아래 방대한 분량의 번다한 문학 작품들 가운데 精髓만을 가려 뽑으므로 일단 배우는 이들에게 학습상의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위 예문의 말처럼 『詩選』과 같은 精髓를 모은 選集을 익히게 되면 순수하고 압박한 경지에 이를 수 있고, 곧 적은 것으로도 많은 것을 대적할 수 있으니, 꼭 익혀야 할 것만을 배우지 않고 이것저것 번잡하게 배우는 이보다 문학적 성취가 더욱 높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疎齋는 김만기·김만중 형제가 『詩選』을 편찬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후학들에게 문학 학습의 길을 제대로 열어주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詩選』은 간접적이긴 하나 편찬자의 문학적 사유가 집약적으로 축적·투영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하나의 좋은 문학학습의 지침서로서 문학을 배우는 이들이 지향해야 할 목표를 명백하게 제시해 주기도 했다고 할 수 있겠다.

9) 李頤命, 「詩選跋」, 『疎齋集』 권10, “蓋欲至粹而無雜 用寡而敵衆 將以開示門路 羽翼風雅 眞迷途之指南 衆矢之正的 其嘉惠後學 噫亦不淺鮮矣 然使讀之者 未窺其全書 而但知有是選 則豈先生由博反約之本旨也哉”

위의 예문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詩選』의 편찬과정의 博으로 말미암아 要約되었다는 말이다. 실제로 『詩選』을 살펴보면 인용된 諸家詩評의 범위가 일정한 문학 유파만을 지향하지 않고 대단히 다양하다. 이러한 경향은 김만기와 김만중의 광대한 독서범위에 일단 근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김만중이 김만기 문집의 跋文에서 말한 것처럼 김만기의 문학적 취향과 사유가 일생동안 한결같지만은 않았다는 것에서도 원인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데,¹⁰⁾ 그것은 곧 김만기가 편벽된 문풍만을 고집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기 때문이다. 김만중은 일찍이 『서포만필』에서 이단이나 편벽된 학설이라도 탐구하고 일정부분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여주며, 당대 지식인들의 편협한 비학문적 태도를 논박한 적이 있다.¹¹⁾ 김만중의 이러한 학문태도는 문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으며, 실제로 그는 『서포만필』의 문학관련 부분에서 다양한 작가들과 작품을 섭렵하고 소개하며 그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기도 하였다.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그들은 기본적으로 復古를 지향하였으며, 이 『詩選』은 곧 그러한 문학적 경향이 투영된 일종의 축적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復古의 추구를 위해 古學이외의 것을 무조건 배척한 것은 아니다. 그들은 당대 문단의 편벽된 詩風에 불만을 품고 그것의 개선을 위해 이 選集을 편찬한 것이었으므로, 방대한 독서량을 통한 博學을 위주로 편협 되고 배타적인 문학 활동을 지양하고 문학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學詩의 균형을 이루려 하였다. 김만기와 김만중의 이러한 博學的 경향을 염두에 둔다면 『詩選』에 인용된 다양하고도 광범위한 諸家の 詩評들은 오히려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들은 근본적인 편찬의도와 선집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要約된

10) 주석5)번 참조.

11) 우용순, 「金萬重의 학문태도와 문학론의 성격」, 참조, 『金萬重文學研究』, 정규복 외, 국학자료원, 1993.

을 보여주어, 『詩選』이 博學을 과시하는 저작물로 전락될 수도 있었던 한계를 차단하였다고 하겠다.

3. 『詩選』 편찬의 實狀

1) 學詩 방향 및 방법의 구체적 제시

『詩選』 卷頭에는 諸家總論이란 편목으로 중국 諸家들의 詩論이 수록되어 있다. 이는 김만기·김만중 형제가 『詩選』을 편찬하면서 견지했던 選集에 있어서의 기본적 지향점 이었다고 생각되는데, 齊梁시대의 鍾嶸과 劉勰에서부터 明代의 胡應麟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핵심적 詩論을 시대 및 인물별로 기록해 놓았다. 수록된 인물은 鍾嶸·劉勰·沈約·李仲蒙·殷璠·劉禹錫·梅聖俞·嚴羽·葉夢得·李夢陽·何景明·徐禎卿·謝榛·王世貞·胡應麟 등으로 모두 15명이다. 明代의 前後七子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실제로 詩論을 살펴보면 호응린 이전의 것들은 모두 왕세정의 『예원치언』에서 인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전후칠자의 설이 대거 인용되어 있다고 해도 별로 놀랄만한 사실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卷頭的 諸家總論은 왕세정과 호응린의 설을 전적으로 수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김만기와 김만중이 復古에 뜻을 두고 『詩選』을 편찬하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또 수용한 것이 왕세정과 호응린이었음을 반영한다. 그렇다고 해서 김만기와 김만중이 어떠한 비평적 인식과 기준도 없이 왕세정이 인용한 諸家の 詩論이나 호응린의 설을 무작위로 인용한 것은 아니다. 그들은 많은 분량의 詩論 속에서 자신들만의 기준으로 그것을 채택하였는데, 수록된 詩論들을 살펴보면 이 점은 더욱 분명해지리라 생각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김만기와 김만중이 『詩選』을 편찬하였던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당대의 치우친 詩風을 바로잡으려는 것에 있었으며, 나아가 後學들에게 올바른 學詩 방향을 제시해주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그들은 모범으로 삼고 익혀야 할 실제 작품들을 선별하기에 앞서 諸家들의 詩論을 채택·수록함으로써 詩를 배우고자 하는 이들에게 學詩의 올바른 방향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해주려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편찬 의도아래 그들은 뛰어난 작품들이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이야기해가며, 그것을 획득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였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妙悟와 法式의 조화를 주장한 호응린의 말이다.

胡應麟이 말하였다. “나는 宋代의 嚴羽에게서 悟字 하나를 얻었고, 明代의 李夢陽에게서 法字 하나를 얻었는데, 모두 千古의 詞壇에 있어서 대관건이다. 두 가지는 치우치거나 폐할 수가 없는 것이니, 法만 있고 깨달음이 없으면 小僧이 규율에 속박된 것과 같고, 깨달음만 있고 法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길을 벗어난 野狐禪과 같을 따름이다.”¹²⁾

이 말은 곧 妙悟와 法式의 조화를 주장한 것이다. 어느 한 쪽도 폐하거나 또 치우칠 수 없으며, 두 가지 방법을 모두 획득하여 조화시킬 수 있을 때 높은 문학적 성취를 이룩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호응린의 말처럼 엄우는 “禪道는 오직 妙悟에 달렸으니, 詩道 역시 妙悟에 달렸다. 오직 깨달음(悟)만이 마땅히 할 일이고 본연의 것이다.”¹³⁾라고 하였으며, 이 설 또한 諸家總論에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서 엄우가 말한 詩道の 妙悟란 漸修 즉 점진적인 수련 끝에 거기서 얻은 지혜가 종합 작용하여 전체에 통하는 이치

12) 「諸家總論」, 『詩選』卷頭, “胡應麟云 於宋嚴儀卿得一悟字 於明李夢陽得一法字 皆千古詞場大關鍵二字 不可偏廢 法而不悟 如小僧縛律 悟不有法 外道野狐耳”

13) 「諸家總論」, 『詩選』卷頭, “嚴羽云 禪道惟在妙悟 詩道亦在妙悟 惟悟 乃爲當行 乃爲本色”

를 절로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한다. 엄우는 妙悟, 즉 깨달음의 경지에서 써 낸 작품을 최상의 작품으로 여겼고, 그 경지에 도달하기 위한 수련과정으로 漢·魏부터 盛唐에 이르는 시들을 충분히 참고하며 熟讀하길 주장하였다. 수록된 엄우의 다른 詩論에서 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시에는 특별한 재능이 있으니 서적과 관계있는 것은 아니며, 시에는 별도의 흥취가 있으니 이치와 관계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서적을 많이 읽지 않고 이치를 많이 궁구하지 않으면 시의 지극한 경지에는 다다를 수 없다.¹⁴⁾

첫머리에서 서적 및 이치와 관계없는 別才와 別趣를 말하여 일견 천부적 재능만을 강조한듯하지만, 결국 풍부한 독서량과 치열한 이치탐구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시의 지극한 경지에 이를 수 없음을 말하여 궁극적으로는 作詩를 위한 수련과정을 긍정하고 있다. 이는 『詩選』 跋文의 ‘재주만 있을 뿐 배움이 없다’라는 탄식과 연결지어 볼 수 있으며, 이 배움의 대상이 곧 이몽양이 말한 法이 될 수 있겠다. 여기에서 法은 과거 시인의 이상적인 작품을 法式으로 삼는 것을 가리키며, 그것을 충분히 熟讀·熟味할 때 妙悟의 경지에 이르러 좋은 작품을 써낼 수 있다. 결국 妙悟와 法式은 떨어질 수 없는 것으로 두 가지가 잘 조화되었을 때 높은 문학적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김만기와 김만중은 호응린의 설을 주로 인용하여 법식으로 삼고 익혀야 하는 대상작품을 詩體별로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제시해주었다.

樂府의 格은 兩漢에서 취하고 악부의 소재는 三曹(曹操·曹丕·曹植)에게서 취하여 三曹의 말을 양한의 格調에 넣되 혼용시켜 흔적이 없도록 해서 離騷에 부합되게 해야 한다.¹⁵⁾

14) 「諸家總論」, 『詩選』 卷頭, “(嚴羽云) 詩有別才非關書也 詩有別趣非關理也 然非多讀書多窮理 則不能極其至”

누구의 악부시를 배우라는 문학적 전범의 단순한 제시가 아니라 대단히 구체적으로 악부시 창작의 방법론을 말하고 있다. 비록 호응린의 설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긴 하지만, 이러한 구체적 방법론의 제시는 學詩者들에게 보다 확실한 수련방법을 제공하는 것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選集의 기능이 더욱 강화된 것이라 생각된다. 樂府詩 외에 五言古詩·五言律詩·排律·歌行·五言絕句·七言律詩 등에 대해서도 호응린의 설을 인용하여 위와 같이 법식으로 삼아야 하는 대상을 열거하며, 어떻게 무엇을 배워야할지 조목조목 설명해준다. 다음은 그 중에서도 五言律詩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五言律詩는 王勃과 楊炯 이전을 익히지 말고, 元稹과 白居易 이후를 살피지 말아야 한다. 먼저 沈佺期·宋之問·陳子昂·杜審言·蘇味道·李嶠의 여러 詩集을 얻어 아침저녁으로 베끼다 보면, 풍골이 고상하고 화려해지며 句法이 크고 넉넉해지며, 音節이 굳세고 맑아지며, 對仗이 면밀하고 엄정해질 것이다. 다음으로 盛唐의 王維·岑參·孟浩然·李白에 이르러 '風神'으로 그것을 길게 하고, '才氣'로 그것을 순통하게 하고, '眞澹'으로 그것을 조화롭게 하고, '清新'으로 그것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런 다음에 杜甫로 돌아가 머물면, 先賢의 자취를 남김없이 밟고 정세한 이치를 꿰뚫어 신묘함을 다 깨우치고 변화를 알게 될 것이니 五言律詩의 법은 그것으로 다하게 된다.¹⁶⁾

왕발과 양형은 初唐때의 詩人이며, 원진과 백거이는 盛唐때의 시인이 다. 근체시는 초당에 이르러 완성되었기에 왕세정을 비롯한 復古論자들은 근체시는 전적으로 唐詩 그 중에서도 盛唐詩 위주로 배울 것을 주장하였

15) 「諸家總論」, 『詩選』 卷頭, “(胡應麟云) 取樂府之格於兩漢 取樂府之材於三曹 以三曹語入兩漢調而渾融無迹 會於離騷”

16) 「諸家總論」, 『詩選』 卷頭, “(胡應麟云) 又云 五言律 母習王楊以前 母窺元白以後 先取沈宋陳杜蘇李諸集 朝夕臨摹 則風骨高華 句法宏瞻 音節雄亮 比偶精嚴 次及盛唐王岑孟李 永之以風神 暢之以才氣 和之以眞澹 錯之以清新 然後 歸宿杜陵 究竟絕軌 極深研幾 窮神知化 五言律法盡矣”

다. 위의 예문 역시 오언율시는 初唐 및 盛唐까지만 배울 것을 말하였다. 더욱이 작가의 이름을 차례차례 거론하며 그들의 시를 익혔을 때 거두게 되는 효과와 창작시 법식으로 삼아 따르되 유념해야할 세부적인 사항까지 말하고 있다. 김만기와 김만중은 『詩選』을 편찬하면서 卷頭에 이러한 學詩의 방향 및 방법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學詩者에게 보다 확실한 수련방법을 제공함과 동시에 選集된 詩들을 왜 법식으로 삼고 또 익혀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득력을 갖출 수 있었다고 하겠다. 또한, 歌行 · 七言律詩 · 五言絶句 등에 대해서는 왕세정의 말을 인용하여 작시상의 어려움 및 유의점과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창작상의 수련방법 등을 수록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한다면 김만기와 김만중이 선집한 이 『詩選』은 復古를 강조하며 시는 古樂府 및 漢魏古詩와 盛唐詩를 배워야 한다는 막연한 주장을 뛰어넘어 법식으로 삼은 대상의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아래 나름대로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김만기와 김만중은 詩가 거두어야 할 중요한 예술적 형상화를 몇 가지 제시하여 學詩者들이 배울 것을 의도하였다.

글 중에서 우수한 문장에는 빼어남도 있고 은미함도 있게 된다. '은미함'이란 글 밖에 있는 다중적인 뜻이며, '빼어남'이란 편중에서 유독 뛰어난 것이다.¹⁷⁾

'隱'이란 글 바깥에 또 다른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뜻으로, 김만기와 김만중은 劉勰의 이 설을 인용하여 함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외에도 梅堯臣의 "다하지 않은 의미를 포함시켜 말 밖에 드러내야 한다."¹⁸⁾는 말과 嚴羽의 "말은 다하였지만 의미는 다함이 없다."¹⁹⁾는 등의 말을 인용하

17) 「諸家總論」, 『詩選』 卷頭, (劉勰云) 文之英蕤 有秀有隱 隱也者 文外之重旨 秀也者 篇中之獨拔

18) 「諸家總論」, 『詩選』 卷頭, 梅聖俞云 (생략) 舍不盡之意 見於言外

여 言外의 함축을 재차 강조하였다. ‘言有盡而意無窮’의 함축성은 주지하다시피 唐詩風의 경향이다. 강서시풍에 치중하였던 당대 문단의 현실을 인식하고 詩風 개선을 위해 이 選集을 편찬하였음을 감안한다면, 김만기와 김만중이 함축의 중요성을 소홀히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江西詩는 시구의 단련과 치밀한 논리적 구성의 특색을 가지므로, 작위적인 경향이 강하다. 김만기와 김만중이 卷頭의 諸家總論에서 함축의 중요성, 意象의 합일, 情의 강조, 興感의 중시 등과 관련된 詩論을 수록한 것은, 그들이 강서시풍에 치우친 당대의 문단 경향을 극복하려 했던 의식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江西詩는 새로움을 위해 흐트러진 율격을 구사하고, 작품의 기세를 강화하기 위해 산문적인 구법을 즐겨 썼으므로 시를 낭송할 때 부드럽지 못하고 매우 억색하게 읽히는 특징을 가지는데, 唐風의 詩가 부드럽게 읽혀 나가는 것과 선명하게 대비된다. 그래서 또한 謝榛의 “近體詩는 읊을 때에는 행운유수처럼 자연스러워야 하고, 들을 때에는 金聲玉振처럼 영롱해야한다”²⁰⁾는 말을 인용하여, 聲律의 자연스러운 조화를 강조하였다. 성률의 자연스러운 조화를 추구한 것은 沈約의 설을 인용한 것에서도 나타난다.²¹⁾

만일 오로지 比와 興만을 쓴다면 뜻이 너무 깊은 병폐가 있게 되니, 뜻이 너무 깊으면 문사가 자연스럽지 못하게 된다. 만일 단지 賦體만을 쓴다면 뜻이 떠올라 드러나니 뜻이 드러나게 되면 문사가 산만하게 된다.²²⁾

19) 「諸家總論」, 『詩選』 卷頭, “(嚴羽云) 又云 盛唐諸公 惟在興趣 羚羊掛角 無迹可求 故其妙處 透徹玲瓏 不可縲泊 如空中之音 相中之色 水中之月 鏡中之象 言有盡而意無窮”

20) 「諸家總論」, 『詩選』 卷頭, “謝榛云 近體 誦之行雲流水 聽之金聲玉振 觀之明霞散綺 講之獨繭抽絲”

21) 「諸家總論」, 『詩選』 卷頭, “沈約云 五色相宣 八音協暢 由乎玄黃律呂 各適物宜 若前有浮聲 則後須切響 一篇之內 音韻盡殊 異句之中 輕重悉異 妙達此旨 始可言詩”

이 예문은 鍾嶸의 설로, 賦·比·興의 조화를 말한 것이다. 比興의 수법은 시로 하여금 무궁한 함축미를 지니게 만든다. 그에 반해 賦는 直敘의 수법으로 위의 예문처럼 뜻이 그대로 드러나게 만든다. 종영은 比興의 수법에만 치중하다 보면 문사가 자연스럽지 못하게 되고, 그렇다고 賦의 수법만을 쓰면 또한 문사가 산만해져 버리므로, 이 세 가지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김만기와 김만중은 이 설을 인용하여 함축미를 중시한 나머지 지나친 함축으로만 흐르는 것을 경계하였다고 생각된다. 賦가 直敘의 수법으로 함축미를 떨어뜨리는 것은 분명하지만, 무조건 전폐하기 보다는 적절하게 활용할 것을 學詩者들에게 권유하여 시의 기풍이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것을 반대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의식의 단초는 김만기가 처음 근체시를 배울 때 江西詩 위주로 하였는데, 이후 편벽된 학습이 불만스러워 왕세정과 호응린의 설을 兼取했다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만년에는 陸遊의 시를 즐겨 읽기도 했다 하니.²³⁾ 결국 그가 근본적으로 싫어하였던 것은 강서시풍이 아니라 편벽된 시풍을 일삼고 학습하는 당대 문단의 경향이었음이 충분히 짐작된다. 그러므로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조화를 추구하려 했던 것은 매우 당연해 보인다. 김만기와 김만중이 왕세정과 호응린의 설을 적극 수용하여 『詩選』을 편찬하였던 것은, 후학들에게 學詩門路를 올바르게 열어 주어 당대의 치우친 시풍을 극복하려 했던 자신들의 의도와 부합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詩選』의 편찬은 어느 누구의 영향도 아닌, 당대 문풍에 대한 비판적 인식으로부터 비롯된 자발적 동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는 선발한 개개의 작품에 수록한 시평들이 일정한 문학유과의 것만이 아니라 그 범위를 헤아리기 힘들만큼 방대하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22) 「諸家總論」, 『詩選』卷頭, “鍾嶸云…(생략). 若專用比興則患在意深 意深則詞蹟 專用賦體則患在意浮 意浮則詞散”

23) 주석 6)번 참조

2) 諸家詩評의 광범위한 수용

『詩選』은 시대 및 詩體, 작가별로 작품을 수록하고 있다. 또, 작가명 아래에는 諸家の 설을 통해 그의 문학에 대한 전반적인 평을 소개하였고, 각각의 작품에도 諸家の 詩評을 덧붙여 놓았다. 卷頭의 諸家總論을 생각할 때 수록된 諸家詩評의 범위를 짐작케 되지만, 실제로 살펴보면 그 범위가 매우 넓고도 다양하다. 물론 왕세정과 호응린의 詩評이 규칙적으로 일정 분량을 차지하고, 많은 양은 아니지만 何景明·李攀龍·徐禎卿·謝榛 등 전후칠자의 詩評도 수록하고 있다. 이런 점들은 제기총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김만중이 김만기 문집의 서문에서 그가 왕세정과 호응린의 설을 취하였다고 말한 것만으로도 일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볼 수 있겠다. 그러나 김만기와 김만중이 수록한 諸家の 詩評은 이들을 제외하더라도 매우 다양하고 또 그 범위가 광대하다. 그 중에서도 鍾惺과 譚元春의 시평이 왕세정·호응린 못지않게 실려 있어 주목된다. 明末清初 전후칠자의 복고주의 문학론이 점점 擬古를 표방하며 古人의 詩를 답습하는 경향으로 흐르자, 性靈을 중시하며 참되고 개성적인 문학창작을 주장하는 公安派가 등장하였다. 종성과 담원춘은 竟陵派로 일컬어지는데, 경릉파는 사실 이 공안파에서 비롯된 문학 유파라고 할 수 있다. 경릉파는 성령을 중시하고 투식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안파의 이론에 근본적으로 동조하였지만, 공안파 문인들이 그러한 주장을 펼치며 古人을 도외시하는 풍조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다. 즉, 경릉파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들이 古人을 도외시키고 스스로 '異'의 詩를 짓는다고 하지만 그 또한 古人의 詩안에 모두 들어 있을 뿐이며, 높은 評價를 받을 만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본다면 그들은 시인의 性靈 즉 개성을 드러내는 眞詩를 중시했지만, '學古'에 대해서는 대단히 긍정적이었다. 그것은 '學古'를 통해 고인의 참다운 정신을 배우려 했기 때문인데, 왕세정·이반룡 등의 전후칠자를 비난한 것은

그들이 ‘學古’를 표방하면서도 고인의 참다운 정신은 얻지 못하고 표절에만 그쳤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경릉파는 전후철자의 의고적 작품에 대해서도 맹렬히 비난하였지만, 공안파의 ‘學古’ 부정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적이었다.²⁴⁾ 종성과 담원춘은 이렇게 ‘學古’를 주장하였으므로, 고인의 眞詩를 선발하고 그것에 評을 달아 『詩歸』라는 選集을 편찬하였다. 『詩歸』는 「古詩歸」와 「唐詩歸」 두 부분으로 되어 있으며, 명말청초 문단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詩選』에 수록된 이들의 詩評은 『詩歸』에서 채택한 것인데, 이로 본다면 김만기와 김만중은 『詩選』을 편찬함에 있어 『詩歸』를 하나의 모델로 삼았을 가능성이 크다. 담원춘의 “말없이 정을 함축한 묘함이 있다”²⁵⁾라든가 종성의 “性情을 해치지 않았다”²⁶⁾ 또는 “言外無窮”²⁷⁾ 등의 평어에는²⁸⁾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고인의 정신을 본받고자 했던 면모가 엿보인다.

呂本中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曹植의 여러 작품들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 ‘밝은 달이 높은 누각에 비치니, 흐르는 빛 속에서 배회하구나!’와 같은 류는 모두 생각이 深遠하고 남은 뜻이 있다. 말은 끝났지만 뜻은 무궁하니, 배우는 자들은 이 말로써 항상 스스로 涵泳한다면 시를 쓸 때 자연히 高妙해질 것이다.”²⁹⁾

呂本中이 말하였다 “... 배우는 자들이 익숙하게 음미하면 자연히 친근하지

24) 고인덕, 「경릉파의 시론과 〈시귀〉」 참조 『중국어문학지』 5 이화중국어문화회, 1994.

25) 宋之問의 〈早入清遠峽〉에 대한 시평, 「唐詩四·五言排律」, 『詩選』 권8. “諱云 有不語含蓄之妙”

26) 佚名氏의 〈越人歌〉에 대한 시평, 「古逸」, 『詩選』 권1, “鍾云 娟而正 不傷性情”

27) 釋寶月的 〈安東平〉其三에 대한 시평, 「齊樂府」, 『詩選』 권2 “鍾云 妙在此句 言外無窮”

28) 『詩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종성과 담원춘의 평이 일정하게 채록되어 있다

29) 陳思王의 〈七哀詩〉에 대한 시평, 「魏詩」, 『詩選』 권3. “呂居仁云 讀曹子建諸詩 如明月照高樓 流光正徘徊之類 皆思深遠而有餘意 言有盡而旨無窮 學者以此等詩常自涵泳 則下筆自然高妙”

않게 될 것이다.”³⁰⁾

陳師道가 말하였다. “陶潛의 시는 胸中의 오묘함을 써낸 것이니, 도잠의 오묘함이 없다면 반드시 그 시를 배워야한다. 그러나 중국에는 白居易처럼 될 따름이다.”³¹⁾

여본중·진사도는 江西詩派에 속한다. 『詩選』에는 이들의 詩評도 간간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양은 얼마 되지 않는다. ‘點鐵成金’·‘換骨奪胎’의 이론을 중시하며 시의 형식적 측면에 힘을 쏟았던 강서파 시인들은 시법 연마에 의해 시를 창작하였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학습을 중시하였는데, 위의 예문 역시 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김만기와 김만중이 이들의 설을 인용하여 제시하려 한 것은 熟讀, 熟味의 학습방법으로, 기교적 측면의 단련 방법에 대해서는 수록하지 않았다. 첫 번째 예문은 여본중이 조식의 〈七哀詩〉가 지니는 ‘言有盡而旨無窮’한 함축성을 칭찬한 것이다. 여본중 또한 『童蒙詩訓』에서 “시를 배우려면 『詩經』·『楚辭』 및 漢魏 작가들의 시를 위주로 해야만 하니, 그래야 古人들의 훌륭한 점을 알게 된다.”라고 하며, 『詩經』·『楚辭』 및 漢魏古詩들을 먼저 배울 것을 강조하였다. 사실상 당대 문단의 경향이 강서시풍을 극복하고 당풍으로 나아가려는 추세였다고는 하지만, 김만기가 江西詩를 배웠다는 사실이나 또는 글자만 조금 알면 七律만을 즐겨 짓는다는 당시 문인들에 대한 비판³²⁾에서 여전히 팽배해 있는 강서시파의 영향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김만중 또한 『서포만필』에서 강서파

30) 李白의 〈關山月〉에 대한 시평, 「唐詩一·五言古詩」, 『詩選』 권5, “呂本中云 … (생략)… 學者熟味之 自然不淺矣”

31) 陶潛에 대한 평, 「晉詩」, 『詩選』 권4, “陳無已云 淵明詩 寫其胸中之妙 無陶之妙 必學其詩 終爲樂天耳”

32) 金萬重, 「先伯氏瑞石先生集跋」, 『西浦集』 권9, “平居手不釋卷 而惟不甚喜作詩 曰 古之詩人 雖號大家 其詩不過千首 今人纔辨平仄 所作七言律 動至累千首 然其材料氣格 已盡於十首之內 奚以多爲”

시인들은 이백보다 두보를 더욱 존중한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³³⁾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둘 때, 김만기·김만중의 강서시풍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강서파 시인들의 저작물에 대한 충분한 독서와 또 그들의 詩論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형성되었음을 어렵지 않게 유추해 볼 수 있다. 『詩選』에 수록된 그들의 시평이 그것을 반증한다. 그러나 그들은 기본적으로 復古에 뜻을 두고 盛唐詩風을 추구하였고, 『詩選』의 편찬의도 역시 그것에 다름 아니었기에 강서파 시인들의 詩評을 수용하되, 매우 적은 비율로 자신들의 기본적인 편찬의식과 부합되는 것만을 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예문에서 말한 熟讀의 학습은 悟入의 경지에 이르기 위한 선행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실제로 여본중은 그렇게 주장하였다. 이는 諸家總論에서 제시한 妙品과 일치하는 學詩 방법이다. 여본중이 明代 전후칠자처럼 復古에 뜻을 둔 것은 아니지만, 『詩經』·『楚辭』·漢魏古詩를 학습의 대상으로 중시했던 점도 김만중과 김만기가 그들의 詩評을 수용할 수 있었던 하나의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김만기와 김만중이 『詩選』에 자신들의 의식과 부합되는 강서파 시인의 詩評을 수용하였다는 점은 진사도의 설을 인용한 것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 위의 예문에서 진사도는 도잠의 작품에 담긴 흥중의 묘를 당연히 배워야 하지만, 그것만 위주로 일삼다가는 결국 백거이처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아마도 백거이가 형식주의를 반대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김만기와 김만중 역시 백거이의 작품을 높게 평가하지 않았음이 『詩選』에 선집된 총 723수의 唐詩 중에 백거이의 시는 칠언절구인 〈昭君怨〉 1수만을 수록한 것에서 충분히 알 수 있다. 또한, 그 아래에 호응린의 말을 인용하여 “樂天의 詩를 세상에서는 뜻과 말이 합하는 것으로써 淺近하다고 이른다.”³⁴⁾라고 하였으니, 누구 설의 영향인지를 떠나 백거이를 높이 평가

33) 金萬重, 『西浦漫筆』, “白樂天元微之王介甫及江西一派 並尊杜”

하지 않음에 그들이 동의했던 것은 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거이의 〈昭君怨〉을 수록한 이유는 그 아래에 다시 이어지는 호응린의 설을 보면 이해가 가능하다. “만약 말이 얇고 뜻이 깊으며 말이 가깝고 뜻이 멀다면 곧 最上이 될 것이니, 어찌 이것으로써 싫어할 수 있겠는가! 그의 〈昭君怨〉 시에 이르면 『詩經』과 「古詩十九首」가 멀지 않다.”³⁵⁾라고 하였으니, 이는 법식으로 삼고 익혀야 하는 작품을 선발하여 후학들에게 門路를 열어주려 했던 편찬의도와 어긋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그런가 하면 五言·七言律詩 선집부분에서는 方回의 시평도 간혹 인용하였다. 방회 역시 강서시파 인물 가운데 한 명이다. 그는 唐宋詩 가운데 律詩만을 가려 뽑고 평을 달아 『瀛奎律髓』를 편찬하였는데, 이 選集은 조선 문단에 널리 유포되어 17세기까지 광범위하게 읽혔다고 한다.³⁶⁾ 『詩選』에 수록된 방회의 詩評은 이 『영규율수』에서 뽑은 것으로 보이며, 그것은 선집의도를 벗어나지 않거나 혹은 살려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盛唐의 律詩는 渾雄함에 힘썼다”³⁷⁾라든가, “한적한 흥취와 담박한 맛이 있으니 공교로움을 추구하지 않았어도 절로 공교한 시가 이것이다”³⁸⁾ 등의 시평이 그러한데, 방회가 강서시파로서 형식과 기교를 중시한 인물이었다 하더라도 『詩選』에 수록된 것이 어색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김만기와 김만중이 『詩選』의 선집의도에 부합할 수 있는 것만을 적

34) 白居易의 〈昭君怨〉에 대한 시평, 「唐詩·七言絕句」, 『詩選』 권1, “胡云 白樂天詩世謂淺近 以意與語合也”

35) 위와 같은 부분, “若語淺意深語近意遠 則最上一乘 何得以此爲嫌 至其昭君怨 三百篇十九首不遠也”

36) 이종목, 「詩風의 變化와 中國詩選集의 編纂樣相」 506면 참조, 『한국 한시의 전통과 문예미』, 태학사, 2002

37) 陳子昂의 〈送魏大從軍〉에 대한 시평, 「唐詩三·五言律詩」, 『詩選』 권7, “方萬里云 盛唐律詩務渾雄”

38) 王維의 〈歸嵩山作〉에 대한 시평, 「唐詩三·五言律詩」, 『詩選』 권7, “方萬里云 閑適之趣 淡薄之味 不求工而自工者 此也”

절하게 인용한 세심한 주의 때문이라 보여진다.

朱文公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項羽는 진실로 초나라 사람이라 그 말이 슬프고 격렬하니 천년의 不平한 분함이 남아 있다.”³⁹⁾

(朱文公은) 또 말하였다. “그의 시는 한 글자도 조작이 없으니, 진실로 기상이 道에 가깝다.”⁴⁰⁾

朱子는 「答鞏仲至」에서 『文選』과 漢魏의 古詩를 뽑고, 郭璞 · 陶潛의 시까지 모두 포함하여 『詩經』과 『楚辭』뒤에 붙여서 시의 근본과 준칙으로 삼고자했다고 하였다.⁴¹⁾ 김만중은 주자의 이 글을 읽고 古樂府와 『文選』시 중심으로 시를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굳어졌다고 밝힌 바 있다.⁴²⁾ 김만기 또한 주자가 중시한 『文選』이 곧 詩家의 正宗이며 시를 배우는 이들은 이로부터 말미암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만기 · 김만중의 복고주의 문학 경향은 『詩選』 편찬을 염두에 둘 때, 明代 복고파의 이론 수용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의 이러한 언급들은 소홀히 할 수 없는 그 나름의 의미를 가진다. 17세기는 주자학이 사회와 학문 전반을 통제하는 시기였고, 김만기와 김만중은 학문에 있어서 충실한 주자학자였다. 따라서, 그들이 『詩經』 · 『楚辭』를 비롯하여 『文選』과 漢魏古詩를 學詩門路로 삼아 復古에 뜻을 두었던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⁴³⁾ 그러

39) 項羽의 〈垓下歌〉에 대한 시평, 「古逸」, 『詩選』 권1, “朱文公曰 羽固楚人而其詞愴慨激烈 有千載不平之餘憤”

40) 韋應物에 대한 평, 「唐詩一 · 五言古詩」, 『詩選』 권5, “又曰其詩無一字造作 真是氣象近道”

41) 朱熹, 「答鞏仲至」, 『朱子大全』 권64, “故嘗妄欲抄取經史諸書所載韻語 下及文選漢魏古詞 以盡乎郭景純陶淵明之所作 自爲一篇 而附于三百篇楚辭之後 以爲詩之根本準則”

42) 주석 2)번 참조

나 『詩選』의 편찬 경향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이 문학적 측면에서 전적으로 수용하였던 것은 명대 복고파의 문학론이었다. 주자가 비록 『詩經』·『楚辭』 및 『文選』과 漢魏古詩를 중시하여 배우고 따를 것을 강조했다하지만, 유가 정통의 관점에서 '올바른 배움의 시작'으로 삼은 것이지 순수문학의 창작활동과는 거리가 있다. 위에 인용된 예문은 『詩選』에 수록된 朱子の詩評인데, 첫 번째는 <垓下歌>의 楚辭 기풍을 말하였고, 두 번째는 작가 韋應物에 대해 인위적 수식이 없어 道에 가깝다고 평한 것이다. 두 예문 모두 朱子の 도학적 문학관이 내재된 것이긴 하지만, 문학의 예술성을 중시하는 순수 창작 활동의 관점에서 인용하더라도 하등 어색할 것이 없다. 그들이 충실한 주자학자였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詩選』에 朱子の詩評을 수록한 것은 일견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수록한 시평은 사실상 소량에 불과하며, 그 내용도 효용론을 중시하는 유가정통의 문학론이 아닌 위의 예문과 같이 작품의 예술성에 대한 순수 評論에 가깝다고 하겠다. 이러한 사실은 김만기와 김만중이 학문적으로 충실한 주자학자였으며 朱子の詩論이 그들의 복고지향의 문학적 성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하더라도, 문학적 측면에서 유가 정통의 효용론적 문학관을 고수하기보다 예술성을 중시하는 순수 문학 활동을 펼쳤음을 보여준다.

위에서 언급한 인물들은 『詩選』의 편찬 경향을 염두에 둘 때, 수록이 당장 어색해 보이는 특정 문학유파 및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이외에도 鍾嶸·楊慎·王通·薛蕙·劉履之·高棅·殷璠·劉克莊·司空圖·李東陽·虞集·張耒·楊萬里·嚴羽·王世懋·謝枋得·皮日休 등 무수한 諸家들의 시평이 수록되어 있다. 낱낱이 다 살펴보진 못했으나, 위의 사실만을 통해서 보더라도 김만기와 김만중은 일정한 선집의도와 기준

43) 안대회, 「17세기 비평사의 시각에서 본 김만중의 복고주의 문학론」, 12면 참조. 『민족문학사』 제20호, 민족문학사학회, 2002.

을 끝까지 고수하였다고 생각되며, 博으로 말미암아 約을 창출한 것이라 보여진다.

3) 選集의 실제

김만기와 김만중이 『詩選』 편찬에 있어서 選集 기준과 의도가 비교적 분명했다고는 하나, 실제 選集에 있어서는 수많은 작가들과 방대한 분량의 작품에 대해 일일이 비평적 인식을 세우기란 어려웠을 것이다. 특히, 작가 개인의 많은 시 작품 가운데에서 몇 편의 佳作을 뽑는다는 것은 감식력과 선별력이 아무리 정미하고 뛰어나다 하더라도 충분한 근거가 없다면 객관적 설득력을 얻기가 어려우며, 자칫 주관적으로 흐를 수 있는 위험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詩選』의 작가 및 작품 선발은 인용한 諸家總論이나 諸家詩評을 두고 볼 때 그들의 기준과 이론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선발의 번다하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 도움 받는 동시에 또한 選集의 객관적 설득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였다고 하겠다. 卷頭의 諸家總論에서 누구의 작품이 좋다는 구체적 제시 같은 것은 좋은 예시가 된다. 김만기와 김만중은 諸家總論에서 “排律은 宋之文·駱賓王·沈佺期·杜審言의 詩를 읽어 格調를 정하고 그 다음에 王維의 風神과 李白의 氣概를 더한 다음에 杜甫의 시를 공부하여 규모를 크게하고 변화를 추구하면 배율을 잘 지을 수 있다고 하였다.”⁴⁴⁾라는 호응린의 설을 수용하였는데, 실제로 五言排律의 선집 양상을 살펴보면 위 예문의 언급된 작가 위주로 그들의 작품 수에 좀더 비중을 실어 선발하였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김만기와 김만중이 호응린의 설을 그대로 따랐다는 측면보다 제

44) 「諸家總論」, 『詩選』 卷頭. “排律先熟讀宋駱沈杜諸篇 做其布格措詞 則體裁平整 句調精嚴 益以學誥之風神 太白之氣概 既奄有諸家美善咸備 然後究極杜陵 擴之以闢大 濬之以沈深 鼓之以變化 排律之法盡矣”

시한 學詩 방향 및 방법에 부합하는 選集을 실현하기 위한 용의주도한 노력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그것은 그가 채록한 많은 시평들이 卷頭에서 제시한 함축의 중요성, 情의 강조, 興感의 중시 등을 포함하는 점과 이백과 두보에 대한 추승으로 이들의 작품은 다른 작가에 비해 월등하다는 사실 등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시인이 古人의 시에 대하여 숭상하는 바가 각각 같지 아니하여도 그들의 才識을 알 수는 있다. 宋代의 嚴羽는 崔顥의 〈黃鶴樓〉를 唐 律詩의 제일이라 여겼고, 明代의 何景明은 沈佺期的 廬家少婦(〈古意〉)를 제일이라 여겼으며, 李攀龍은 王昌齡의 秦時明月(〈從軍行〉)을 絕句의 제일이라 하였다. 楊慎은 劉禹錫의 春江一曲(〈柳枝詞〉)을 제일이라 하였고, 胡應麟은 王翰의 蒲桃美酒(〈涼州詞〉)를 제일이라 여겼다.⁴⁵⁾

위의 예문은 『西浦漫筆』에 수록된 한 부분이다. 김만중은 詩人에 따라 숭상하는 古人의 詩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각각 제일이라 여기는 시를 나열하였다. 위에 해당하는 작품들을 『詩選』에서 찾아보면 각 시인들의 말이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최호의 〈황학루〉를 선발하고 제목 아래에 唐人의 七律 중에 마땅히 이 작품이 제일이라는 嚴羽의 말을 기록하였고,⁴⁶⁾ 왕한의 〈涼州詞〉 아래에는 初唐의 絕句중에 蒲桃가 으뜸이라는 호응린의 말을 기록하였다.⁴⁷⁾ 다른 작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는 여러 시인의 작품에 대한 이러한 詩評들 또한 『詩選』의 실제 작품 선발의 토

45) 金萬重, 『西浦漫筆』, “詩人於古人之詩 所尚各不同 亦可見其才識 宋嚴滄浪以崔顥黃鶴樓爲唐律第一 明何大復以沈佺期廬家少婦爲第一 李滄溟以王昌齡秦時明月爲絕句第一 楊升菴以劉禹錫春江一曲爲第一 胡元瑞以王翰蒲桃美酒爲第一”

46) 崔顥의 〈黃鶴樓〉에 대한 시평, 「唐詩·七言律詩」, 『詩選』 권9, “嚴羽云 唐人七律當以此篇爲第一”

47) 王翰의 〈涼州詞〉에 대한 시평, 「唐詩·七言絕句」, 『詩選』 권11, “胡云 初唐絕 蒲桃爲冠”

대가 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나아가 『서포만필』의 기술과 『詩選』의 실제 選集이 부합되는 것은 『詩選』 편찬이 편찬자의 세심한 주의 아래 평소 생각하던 바대로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김만중의 위와 같은 언급은 풍부한 독서량을 자랑하는 博學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詩選』 편찬이 이러한 博學의 토대 위에 이루어졌음은 앞에서도 확인한 사실이다.

元和 이후에는 따르는 길이 점차 갈라져서 雅俗을 겸하여 나타냈으므로, 원진과 백거이의 많은 시들을 세상에서는 廣大教化主라고 이르지만, 독실한 사람은 끝내 그들을 王維 · 孟浩然 · 韋應物 · 柳宗元의 뒤에 두지 않았으니, 어찌 그들이 갖춘 재주는 비록 크지만 聲調가 俗에 가깝기 때문이 아니겠는가?⁴⁸⁾

원진과 백거이에 대해 聲調가 俗에 가깝다고 낮게 평가한 『西浦漫筆』의 기록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김만기와 김만중은 『詩選』 전체에서 백거이의 작품은 〈昭君怨〉 한 편만을 선발하였으며, 그것도 호응린의 평을 인정했기 때문이었다.⁴⁹⁾ 이처럼 김만중은 백거이의 문학적 성과를 높이 사지 않았으며 聲調가 俗에 가깝다고 폄시하였는데, 『詩選』에는 이러한 평가 또한 같이 수록하였다.⁵⁰⁾ 한편 원진의 시는 단 한 편도 선발하지 않았는데 『詩選』에 원진과 백거이의 시를 거의 수록하지 않은 것은 김만중이 이들에 대해 위와 같은 평가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48) 金萬重, 『西浦漫筆』, “元和以還 蹟逕漸岐 雅俗兼陳 故元白居易 世所謂廣大教化主 而篤論者 終不加之於王孟韋柳之上 豈不以材具雖大 而聲調近俗故與”

49) 주석 33)번 참조

50) 주석 32)번 참조.

4. 結論

김만기와 김만중은 당대 문단의 치우친 시풍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바로잡고자하였다. 『詩選』의 편찬 동기와 목적이 그들의 이러한 비판적 인식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은 본고에서 논의된 사실이다. 다만 김만기와 김만중이 이 選集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한 적이 없어 『詩選』 편찬의 정황을 편찬자의 문학 활동 및 당대 문단의 경향 또는 다른 문인의 언급을 통해서 파악할 수밖에 없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특히, 김만기의 경우는 그의 문학적 사유를 파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더욱 곤란을 겪었다. 그러나 『詩選』은 江西詩風을 지양하고 漢魏古詩 및 唐詩의 풍정으로 나아가려 했던 17세기 당대 시풍의 변화를 반영하였다는 자체만으로도 그 자료적 가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편찬자가 당대 문단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던 김만기와 김만중이라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들은 당시 문인들의 편향된 학문자세를 비판하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학문자세를 견지하려 노력하였다. 이러한 학문자세는 다양하고 풍부한 그들의 독서량에 기반한 것이었으며, 그것은 곧 博學으로 이어졌다. 김만중의 『西浦漫筆』 같은 저작물은 博學的 경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만기 또한 김만중이 쓴 跋文이나 家狀에서 확인되듯이 편벽된 문풍을 지양하고 다양한 문풍을 섭렵하면서 문학 활동의 균형을 이루고자 하였으니, 이 또한 博學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 살펴본 결과, 『詩選』은 법식으로 삼고 익혀야 하는 작품만을 단순하게 선별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卷頭에 諸家總論篇이라는 다소 특이한 형식을 덧붙여 學詩 방향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후학들에게 學詩의 門路를 열어주려 하였다. 또한 특정 문학유파를 막론하고 다양하고도 광범위한 諸家의 詩評을 수록하여 選集의 객관적 설득력을 확보하

였으니, 이는 김만기와 김만중의 博學의 성향이 간접적으로 투영된 것이었다.⁵¹⁾ 그러나 편찬 과정에서 김만기와 김만중은 본래 뜻을 두었던 復古 추구의 기본 방침을 끝까지 잃지 않았으며, 오히려 博學에 기반을 두고 다양한 문학유파들의 詩評을 인용하며 자신들의 선집의도를 적절히 부각시켰다. 실제 작가 및 작품 선발에 있어서도 세심하고 용의주도하게 편찬자의 選集 기준을 잘 반영하여 『詩選』이 자칫 주관적 감식력에 기인한 선별로 흐를 위험을 방지하였다고 하겠다.

김만기와 김만중은 공동으로 편찬한 이 『詩選』 외에도 다른 詩文選集을 각각 편찬한 바 있다. 김만기는 『唐宋碑誌』·『皇明律選』·『東詩選』을,⁵²⁾ 김만중은 『唐詩聲音合編』·『宋律』·『古詩選』을 편찬하였는데,⁵³⁾ 이 選集들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어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 그러나 選集名만으로도 그들의 選集활동이 편향되지 않고 다양함을 추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김만중의 『宋律』⁵⁴⁾과 『古詩選』⁵⁵⁾의 경우는 문집에 序文이 남아 있어 편찬상황의 정황을 대략이나마 파악할 수 있는데, 『古詩選』은 그의 복고적 문학성향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며, 『宋律』은 復

51) 17세기 당시에는 문인들의 博學 경향이 이미 보편적 현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미 이수광, 신흠 이래 장유, 윤휴 등에게서 이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데, 광범위한 독서 경험을 바탕으로 주자학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漫筆類의 저술을 통해 자신들의 풍부한 지식과 상대적 가치관의 면모를 피력하는 것은 17세기 일군의 개명된 지식인들의 공통된 성향이라 할 수 있다 (우용순, 앞의 논문 40면 참조) 이러한 당시 문단의 변화 양상을 고려한다면, 『詩選』이 김만기와 김만중의 博學 경향이 투영된 편찬물로서 이 역시 당대 문단의 상황이 반영된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52) 金萬基, 「家狀」, 『瑞石集』 권18, “所抄選者 詩選·唐宋碑誌·皇明律選·東詩選藏于家”

53) 김병국 역, 「서포연보」 참조, 『서포 김만중의 생애와 문학』,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54) 김만중의 문집에 「宋詩抄序」가 남아 있는데, 이것이 곧 『宋律』을 가리키는 것이라 생각된다.

55) 『古詩選』은 김만중과 李敏鉉가 함께 편찬한 것이다. 「古詩選序」는 이민서가 쓴 것이며, 그의 문집에 남아 있다.

古의 추구 속에서도 學詩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려 했던 그의 의식이 반영된 결과물이라 여겨진다. 실제로 그는 序文에서 宋詩가 唐詩만 같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그 못한 까닭을 직접 알아야만 하므로⁵⁶⁾ 宋詩 또한 읽고 익혀야 함을 강조하였다. 『詩選』 편찬은 김만기와 김만중의 이러한 選集활동에 기반한 것으로, 그 편찬동기와 과정이 문학적 사유의 충분한 축적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된다.

56) 金萬重, 「宋詩抄序」, 『西浦集』 권9, “夫宋之不如唐固也 而要識所以不如者 不然與太史公所譏耳食何異”

【참고문헌】

■ 자료

- 金萬基 · 金萬重, 『詩選』, 규장각 소장본.
金萬基, 『瑞石集』, 『韓國文集叢刊』 144-145, 민족문화추진회.
金萬重, 『西浦集』, 『韓國文集叢刊』 148, 민족문화추진회.
金萬重, 『西浦漫筆』, 통문관 영인.

■ 저서 및 논문

- 윤호진, 「김만중 문학론 연구」, 한국학대학원 석사논문, 1982
원종례, 「胡應麟의 樂府詩 研究」, 『論文集』 19, 성심여자대학교, 1987.
원종례, 「王世貞과 胡應麟의 詩論 研究」, 『論文集』 21, 성심여자대학교, 1989.
김진영, 「西浦 金萬重의 文學觀과 批評樣相」, 『진단학보』 74, 진단학회, 1992
우응순, 「金萬重의 學問態度와 文學論의 性格」, 『金萬重文學研究』 정규복 외, 국학자료원, 1993
고인덕, 「竟陵派의 詩論과 〈詩歸〉」, 『중국어문학지』 5, 이화중국어문학회, 1994.
정 민, 「17세기 學唐風의 성격과 그 풍정」, 『목릉문단과 석주 권필』, 태학사, 1999.
김병국, 『서포 김만중의 생애와 문학』,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김원중, 「중국문학에 대한 西浦 金萬重의 鑑識眼」, 『중국학논총』 14, 한국중국문화학회, 2002.
안대회, 「17세기 비평사의 시각에서 본 김만중의 복고주의 문학론」 12면 참조, 『민족문학사』 제20호, 민족문학사학회, 2002
이종묵, 「詩風의 變化와 中國詩選集의 編纂樣相」, 『한국한시의 전통과 문예

미』, 태학사, 2002.

이종묵, 「조선중기 詩風의 변화양상」, 『한국한시의 전통과 문예미』, 태학사
2002.

김준연, 「胡應麟의 唐代 近體詩論 研究」, 『中國文學』 39, 한국중국어문화회
2003.

Abstract

About 『The anthology(詩選)』 edited by
Kim man-gi and Kim man-jung

Choi, Eun-Joo

A selection for poetry and prose has special quality that must select writer and work of schedule quantity circumscriptively under clear selection intention and standard from great many writer and works middle. Therefore, we can speak that a selection for poetry and prose is a literary work that has expression editor's critique and tendency of literature activity are projected as a general rule. Although direct creative activity is not does, we can grasp enough expression of editor's critique and literary tendency by a intention and a standard and a format form for selection etc that is reflected to the selection for poetry and prose. Moreover in case of 『The anthology』, through 'synthetic poetics of several writer' of beginning of a book summarized by Kim man-gi and Kim man-jung, we can grasp selection

standard and intention more detailedly Also it introduced review of various masters connected with selected writer and work And we could investigate clearly about whether the editor applied selection standard as is how penetrating and whether the editor defended selection plan to end.

In according to result that observe this manuscript, root intention of making up 『The anthology』 was presenting 'right direction that learn poem' to younger students in restoration to straighten the poetical style that lean of present age By persons who Kim man-gi and Kim man-jung have an inclination toward reactionism to literature, they used fair influence on center political world and present age literary world therefore, tried to present literary standard to younger students by making up 『The anthology』 to realize restoration. This selection selected works that must learn by rules and forms, and besides presented in the concrete direction and method that learn poem by having the use of singular section called 'synthetic current trend of opinions of several writer'. Also they secured objective powers of persuasion by writing a review of poetry of various masters widely and diversely as a matter of course a specific

literary sect. And reflected well editor's selection standard by selecting real writer and work prudently and circumspectly. These special quality of editing 『The anthology』 will say that could accomplish high result in valuable side that function of selection and studying effect.

Key Word

『The anthology(詩選)』, Kim man-gi(金萬基), Kim man-jung(金萬重), the seven-teenth century, restoration, wide knowledge